

답니다. 저는 왔다 갔다 집 주위를 서성대면서 도대체 어디로 가서 두 분을 찾아야 할지 혼자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러다 겨우 두 분께서 옛날에 입던 옷을 가져와 피델한테 냄새를 맡게 했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이 가련한 짐승이 마치 내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두 분이 걸어간 길을 추적하기 시작했다니깐요. 그렇게 이 녀석이 계속해서 꼬리를 흔들면서 저를 흑강까지 이끌어주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한 주민으로부터 두 분께서 그 사람네 집에서 도망친 흑인 여자 노예를 다시 데려왔고, 그 사람이 두 분 의견에 따라 자비를 베풀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자비랍니까! 그 사람은 저한테 통나무에 묶여 있는 그 흑인 여자를 보여줬는데, 발에는 쇠사슬을 채우고 목에다가는 갈고리가 세 개 달린 쇠 굴레를 씌워놨더군요. 계속해서 두 분의 자취를 쫓던 피델은 거기서 흑강 언덕으로 저를 데려갔고, 언덕에 이르자 다시 한 번 멈춰 서더니 온 힘을 다해 짓었어요. 샘터 부근이었는데 주변에 캐비지야자나무 한 그루가 쓰러져 있었고, 그곳 가까이 아직 연기가 오르는 불이 지펴져 있었습니다. 이제야 마침내 피델이 저를 이곳에 데려다 주었

● 구약성경 룻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노인은 유다 베들레헴을 룻의 고향으로 착각하고 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나옴이는 남편이 죽고 결혼한 두 아들까지 죽자 모압 사람이었던 며느리들을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두 며느리 중 오르파는 본가로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나옴이를 좇아 낯선 땅에 정착한다. 룻은 이삭을 줍다가 밭의 주인인 보아즈를 만나고, 보아즈는 룻의 효심에 감격해 호의를 베풀다. 나옴이는 룻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룻을 보아즈에게 보내고, 보아즈는 마을 원로들 앞에서 룻과 혼인하겠다고 선언한다.